

# 여수 전남대, 경비업체 선정 특혜 의혹

### 경쟁업체 이행할 수 없는 조건 내걸어 수의계약

### 학교측 기존 장비 노후화 우려 불구 점검도 안해

전남대 여수캠퍼스(이하 여수캠퍼스)와 수역원대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 이후 기존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계약 조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캠퍼스는 지난 2010년 경비용역을 발주하면서 '스마트카드 및 전자공무원증 기반 통합경비시스템 운영실적 단일건으로 3억원 이상만을

실적으로 인정', '낙찰과 동시에 14일 안에 공사 완료' 등의 조건을 내걸어 기존 경비용역업체인 S업체에 지나치게 특혜를 줬다는 논란(본보 2010년 10월25일자 보도)이 일었다.

당시 경쟁업체들이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면서 6억원 규모의 경비용역은 두 차례 유찰된 뒤 결국 S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그러나 확인 결과 S업체는 계약을

맺은 뒤 추가공사 없이 기존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당시 계약 조건이었던 '전자공무원증 호환' 역시 최근에야 이뤄졌다.

S업체가 시설 보안을 미뤄 지난 2007년 설치된 장비가 5년 이상 사용되면서 노후 장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정기적인 점검관리를 외면, 특정업체 봐주기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공사 완료에 대한 검수는 발주기관인 여수캠퍼스의 의무이며, 통상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 지체 배상처리와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S업체가 배치한 여수캠퍼스 경비보안 요원은 모두 3명으로, 평일 오전·오후, 휴일에 1명씩 근무하도록 돼 있으나 계약 이후 보안요원의 퇴직으로 인해 상시 근무요원의 결원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업체 관계자는 "대기 인원 투입,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조정해 업무 공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여수캠퍼스 관계자도 "전자공무원증과의 호환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뤄지고 있으며, 보안요원들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으로 놀러와요”** 부산시 연세구 초등학생 등 100여명이 지난 5일 순천시 민박통합예약시스템인 ‘순천 놀러와 체험상품’을 통해 순천 향매실마을을 찾아 농촌체험 활동을 벌였다. 순천에선 지난해 주말 용오름마을 등 12개 마을에서 6만5000여명의 관광객이 농촌체험을 했다. <순천시 제공>

## 새해 새 설계

정중해 보성군수

# “억대부농 1천가구 육성”



### 1000억 농림어업 투자

### 지역 특산물 지원 강화

### 꼬막·녹차산업 관광연계

“군민과 함께 잘사는 1등 보성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정중해 보성군수는 7일 “지역의 농어업 비중이 52%를 차지하기 때문에 잘사는 보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이 잘살아야 한다”며 “전국 제일의 경쟁력을 갖춘 농어촌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지역의 주산업인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2013년 보성군 예산 3500여억원 가운데 1000여억을 농림어업 분야에 투자, 친환경 농림수산업을 지속가능한 녹색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16년까지 연소득 1억원 이상 1000가구 육성을 목표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감소농과 농·특산물 가공 산업,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등의 발굴을 지원한다. 또 대한민국 1등 브랜드로 발돋움한 녹차미인 보성 찻·보성삼베·웅치 울베 쌀 등 지역 대표 농산물과 향토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보성녹차의 품질 고급화와 함께 사계절 차 체험장 및 세계 차나무 식물원 조성 등을 통해 차와 연계한 관광 산업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간다는 것이 정 군수의 복안이다.

파크와 관소리 전수교육관, 흥암 나철선생 선양사업 추진 등으로 전통문화유산 계승 발전에 힘쓰는 한편 아름다운 차밭과 전국 3대 명품 해변인 울포솔밭해변·한국차 박물관·태백산맥문학관 등과 연계되는 국민 여가 캠프장을 개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부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공공도서관 개관, 보성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보성군 장학재단 기금 확보 등을, 사회복지 부문 주요 사업으로는 보성어린이집 신축, 드림스타트 사업 전면 확대 등을 제시했다. 지역사회의 간접자본 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보성을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거점문제제지 종합정비사업, 일일산권역·특량민권역·미력권역 종합개발사업,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생태문화탐방로, 별교천 생태하천정비 등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정 군수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보성읍사무소 신축·보건 행정환경개선·민원 예약 서비스제도를 도입해 군민을 섬기는 고품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지난해의 여세를 모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사는 1등 보성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 해조류 수거 집계장치 개발

### 해남 옥천농공단지 수산기재업체 '뉴텍' 상용화

### 물김 등 적은 노동력으로 단시간에 안전 운반 가능

해남 옥천농공단에 있는 수산기재 전문업체인 (주)뉴텍이 물김을 적은 노동력으로 짧은 시간에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해 상용화에 나섰다.

이해 뉴텍 강성우 대표와 동생 강성국 전무이사(주)뉴텍이 물김을 적은 노동력으로 짧은 시간에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해 상용화에 나섰다.

강성국 전무(40)는 “2001년부터 해조류 운반용 집계 장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제야 완성하게 돼 속이 후련하다”고 말했다.

그 동안 물김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여러명이 바가지로 일일이 옮길 수밖에 없어 작업이 지체됐으나 최근 개발된 집계 장치를 사용하면 신속하게

처리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강 전무는 “2~3명이 하던 일을 기계가 해 인건비를 줄이고 작업시간도 2시간 정도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람이 직접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어린이들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17일 해남군 송지면 화가리에서는 개발된 기계로 물김을 배에서 자루로 옮기는 시연회가 열렸으며, 물김 재배 어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뉴텍은 이 해조류 수거 집계장치에 대한 특허등록을 이미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첫 해 매출을 30억원~50억원(기계 1대



자신이 개발한 해조류 운반용 집계장치 앞에 선 강성국 전무.

가격 1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 전무는 “매출과 고용이 늘어나면 해남군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 효과도 낼 수 있어 지역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뉴텍은 그동안 수산업의 기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양식용 전복관리기를 개발해 어민들의 일손을 줄여 전복의 대량 양식을

가능하게 했고 어선인양기로는 전남뿐만 아니라 부산·강릉·인천의 해안지역 중소형 인양기 수주실적 1위를 달성했다.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연구노력으로 특허와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 등 20여개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여수 청소대행업체 市 상대 소송 기각

여수시가 시 청소업무를 도시공사로 이관한 데 반발해 청소 대행업체들이 법원에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청소대행업체가 시에서 시도시공사로 이관된 데 반발해 여수보건공사, 여천보건공사, 그린여천환경 등 3개 업체가 지난해 말 시도시공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최근 기각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수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방적으로 청소용역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혀 시가 청소대행 계약을 해지한 것이 법적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새얼굴

# “농·어업인 불편 해소 최상 서비스”

### 허을석 농어촌소 광주시장장



“농·어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더욱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허을석(57)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은 “농·어업인을 위해 공사가 존재하는 만큼 농업의 최일선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도 출신인 허 지사장은 포스코와 방송통신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대학원에서 농촌

개발 전문가, 목포대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다. 지난 1981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해 영산감사업단 총무부장, 화순지사장, 순천광양여수지사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문자(54)씨와의 사이에 1남1녀가 있다.

/이문미기자 emlee@

## 새로운 패러다임의 거침없는 뉴스쇼

TV조선  
뉴스쇼

관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

최희준 TV조선 취재에디터

김미선 TV조선 정치부 기자

월~금 밤 9시 50분 방송

대한민국 어디서나 채널 19번 TV조선